

제시문 구조 분석한 글쓰기로 부족한 준비 기간 극복했어요



선배들의 전형별 합격기
논술전형 ②



이시연
중앙대 경영학부 1학년
(대구 해화여고 졸업)

이시연씨는 고3이 되면서 정시전형을 대입 주력 전형으로 정하고 수능 공부에 집중했다. 하지만 수능 시험에서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표를 받고 단기간에 논술을 준비했다. 1~2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턱없이 부족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의 도움 없이 독학으로 논술 시험을 공부해, 100:1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중앙대 경영학부 논술전형의 최초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다. 제시문 각 문단의 구조를 쪼개듯이 분석한 후 본인이 파악한 답안을 쓰는 식으로 연습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는 이시연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김원모 리포터 fasciner@naeil.com

Q. 논술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대부분의 재학생이 그렇듯, 저 역시 고2 때까지는 주력 전형에 대한 큰 고민 없이 학생부종합전형만 염두에 뒀었어요. 하지만 2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기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정시전형으로 방향을 틀고 수능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능을 치른 후 성적표를 받고 보니 희망 대학·학과에 지원하기엔 부족하더라고요. 하지만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충족할 만한 성적이었기에 논술전형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고 논술고사 전까지 독학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총 3개 대학의 경영학부 논술고사에 응시했고 그중 중앙대 경영학부에 최초 합격했습니다.

Q.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충족했나?

중앙대 경영학부 논술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3개 영역 합6 이내예요. 제 경우 수능 탐구 과목은 <사회·문화> <경제>를 선택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사회·문화> 세 과목 각각 2등급으로 맞췄습니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중 논술 준비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입시를 치러보니 최저 기준이 관건이더라고요. 제 경우 2학년까지 학교 내신 시험 공부를 충실히 한 것만으로도 수능 공부의 기반이 됐다고 생각합

2022학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대학에 정시전형과 추천형 교과전형이 급증하면서 대입 지형도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형별·대학별 특징과 선배들의 합격 비결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_편집자

논술전형, 대학 선택이 관건

TIP

“내 성향에 잘 맞는 대학은 따로 있다”

대학별 파악

논술전형은 대학별로 문제 출제 유형 및 채점 기준이 다르다. 어떤 학교는 답안 자체를 최대한 길게 쓸수록 유리하고, 어떤 학교는 정확한 방향으로 짧게 요약해 써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긴 답안을 요구하는 학교는 그만큼 그 안에 최대한 많은 개념과 지식을 포함해야 하므로 나처럼 단기간에 준비하는 경우 확실히 불리했다. 또 제시문이 <생활과 윤리>에서 주로 나오는지, <사회·문화>의 개념이 제시되는지, 아니면 문학 작품 분석인지도 학교별로 경향이 다르다. 본인이 공부해온 과목 혹은 평소 자신 있는 과목과 관련 있는 내용이 주로 출제되는 대학의 논술 시험이 아무래도 합격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계열은 수리 논술이 합격의 키”

수리 논술

경영·경제 계열의 논술전형은 대부분 수리 논술을 포함한다. 중앙대 경영학부의 경우 논술 시험 세 문제 중 결국 3번 수리 논술 문제에서 합격·불합격이 갈리지 않았나 생각한다. 인문 계열 학생은 수리 논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상경 계열의 수리 논술 문제는 수능 수학 시험에서 3점이나 쉬운 4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면 어렵지 않다. 대신 풀이 과정이 관건이다. 수리 논술 역시 학교마다 출제 경향과 원하는 모범 답안이 조금씩 다르다. 희망 대학에서 공개하는 기출문제를 철저히 공부하고, 최대한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풀이 과정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길 권한다.

니다.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내신을 놓지 않고 공부한 게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었고 그 덕에 논술전형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Q. 논술고사는 어떻게 준비했나?

논술고사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았다 보니, 정해진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논술 답안을 써보는 연습은 3개 대학의 기출문제를 각각 한 번씩만 해봤어요. 다 풀은 후 제가 쓴 답안과 학교에서 제시한 모범 답안을 비교했는데 역시 너무 다르더라고요. 대학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려면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제가 파악해낸 건 글의 구조를 쪼개서 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제시문 <가>의 관점에서 제시문 <나>를 논하라는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첫 문단에는 제시문 <가>에 대해 내가 파악한 내용을 쓰고, 두 번째 문단에는 제시문 <나>에 대한 내 관점을 씁니다. 마지막 문단에 비로소 <가>를 통해 해석한 <나>에

대한 논리를 펴나가야 모범 답안과 제일 비슷하게 완성돼요. 즉, 하고자 하는 말을 몽똥그려 쓰지 않고 문단별로 쪼개서 글을 쓰는 거죠. 논술 학원에 다니거나 누가 가르쳐줬다면 쉽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혼자 파악하려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들에게 해주고픈 조언이 있다면?

고3은 절대 논술전형을 주력 전형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경쟁률도 너무 높고, N수생과의 경쟁도 쉽지 않거든요. 논술고사에서 제시문은 대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등 사회탐구 과목이나 국어 과목에서 배우는 문학 작품에서 나와요. 수능 준비, 특히 국어와 사탐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면 논술 준비도 같이 되는 셈이에요. 최저 기준은 대부분의 논술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므로 수능 공부를 반드시 병행해야 논술전형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